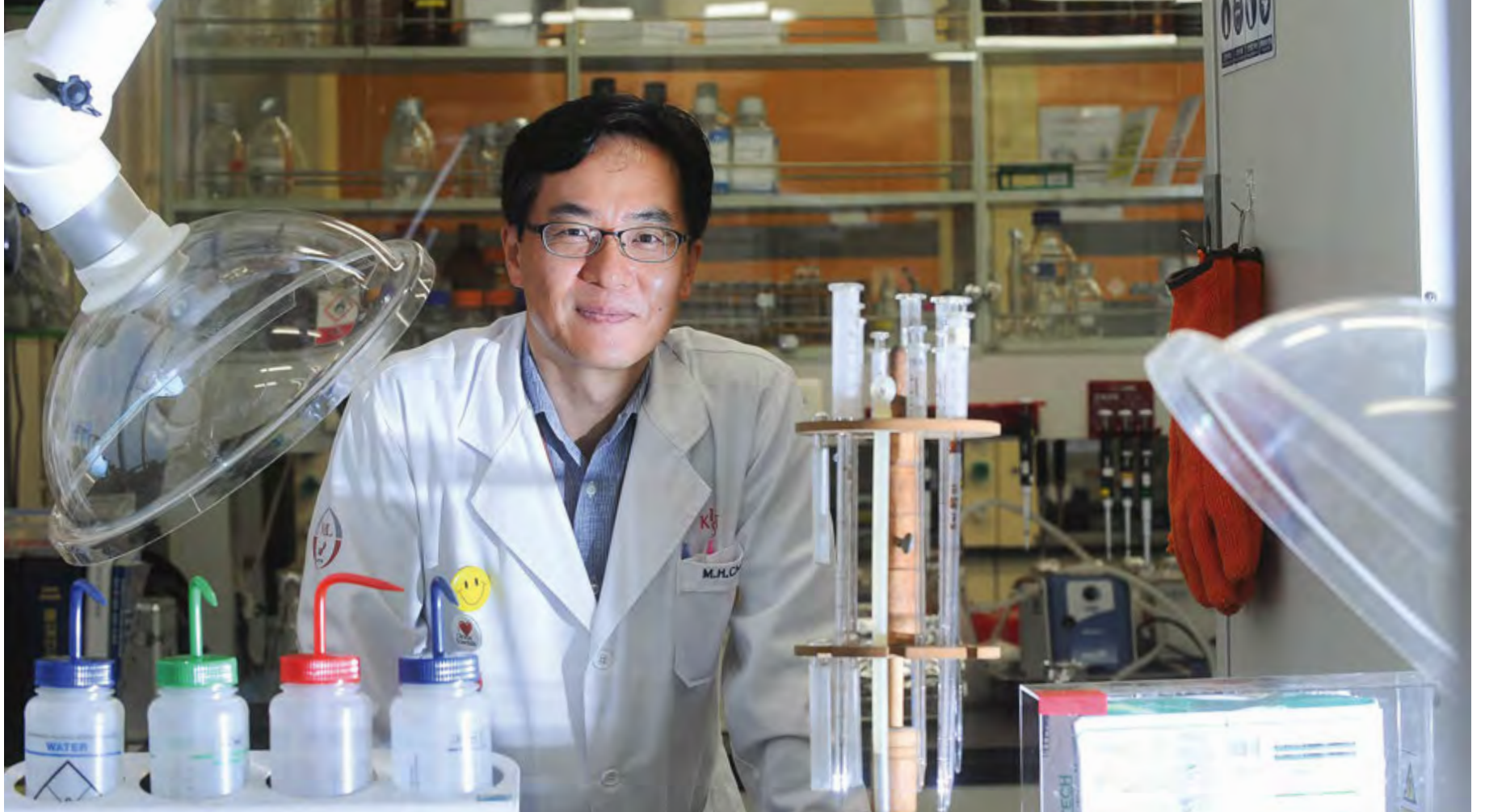


국내 최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분석 전문가를 만나다



“한국서도 스테로이드 분석이 가능하냐고요?”

#서울시 성북구에 사는 한 소년의 동네에 큰 건물이 들어섰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우리나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라는 곳인데, 최고의 과학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연구소란다. 그러면서 소년에게 “네가 커서 이 연구소에서 일했으면 좋겠구나”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40여년 후, 이 소년은 부모의 바람(?)대로 정말 KIST의 연구자가 됐다.

국내 몇 안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분석 전문가인 KIST 최만호 책임연구원(약학박사)의 이야기다. 국내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분석 전문가가 몇 안 된다고 이야기 했지만, 그 몇몇도 최만호 박사팀에 속해 있다. 사실상 최만호 박사팀은 국내 유일의 스테로이드 호르몬 전문 연구분석팀인 것이다. 안드로겐, 에스트로겐 등 인체 내 다양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을 통칭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새롭게 발견된 물질이 아니다. 또 우리나라는 스테로이드제제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도 알려져 있다. 즉,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작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 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석하는 전문가는 극히 드물까? 의사들이 스테로이드 분석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일까? 의료진과의 협업을 많이 한다는 최만호 박사의 말을 빌면 그렇지 않다. 최 박사는 “의사들이 국내에 스테로이드 분석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꿈을 이룬 성북구 소년(?)을 KIST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 먼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분석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컨대 A라는 질환에 알파, 베타,

“
의사가 해외에 의뢰했던
스테로이드 분석
우리에게겐 껌이었다
”

감마라는 스테로이드가 관련 있다고 치자. 이럴 경우 관련된 스테로이드만 분석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들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확인한다. 이런 방식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 팀은 알파, 베타, 감마 스테로이드들 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몸속에서 생리활동과 관련된 여부를 파악한다.

- 일종의 ‘스테로이드 맵’을 만들어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는 일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

그렇다. 현재 교과서 등에서 인간의 몸속에 있는 스테로이드가 220종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중 그 각각의 기능에 대해 알려진 건 70여종이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맵’에는 70개를 넘는 84개가 그려져 있다. 보다 많은 스테로이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기존에 병원에서는 각 스테로이드를 분석하기 위해선 그에 따라 키트를 하나씩 다 구입해야 했다. 예컨대 80개의 스테로이드를 보기 위해선 80개의 키트를 사서 각각 분석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혈액을 한번 받으면 80개를 한번에 다 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우리팀의 최대 장점이다. 이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선 상당한 비용이 든다.

- 국내에 스테로이드 분석 전문가가 드물다고 들었다.

스테로이드 연구는 제한적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 스테로이드를 임상적으로 적용해서 결과를 내는 팀은 우리가 유일하다고 봐도 딱히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연구를 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많은데, 특히 의료진과 협업을 할 때가 그렇다. 어느 날 새벽 전화 한통을 받았는데, 한 의사가 성기에 이상이 생긴 신생아의 스테로이드 분석을 급히 해보고 싶다는 전화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혈액 샘플을 받아마자 만사를 제쳐 두고 연구원들과 그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원인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원인 파악이 급한 환자가 비단 이 신생아뿐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분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우리팀 뿐이다. 다행히 최근에 분야에 뛰어들 연구팀이 생겼다.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이 분야에 더 많은 연구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 현재 최 박사님의 팀을 모르는 다른 의사들은 스테로이드 분석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대개 미국이나 일본 관련 연구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분당 차병원 유은경 교수와 식물성 스테롤 질환 진단 기술 연구를 발표했는데, 유은경 교수도 관련 환자가 식물성 스테롤 질환인지 알아보기 위해 스테로이드 분석을 해외에 의뢰했었다고 들었다. 해당 질환이 맞다고 확인이 돼 보다 자세한 연구하기를 원했고, 국내에서 스테로이드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팀을 수소문한 끝에 우리와 연결이 됐다. 유은경 교수에게 해당 질환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 가능하냐는 말을 듣고 내용을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속된 말로 “우리 입장에서 껌인데”였다. 우리가 늘상 해오던 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고 진단기술

▶ 5면에서 계속

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 말을 들어보니 의사들이 스테로이드에 관심이 없다기보다, 분석이 가능한 연구팀이 국내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 우리(스테로이드 호르몬 전문 분석가) 같은 이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관련 연구팀을 단기간 내 양성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최소한 우리라도 알아줬으면 싶다. 우리의 룰(role)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단은 우리의 무능함을 자책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해외에선 우리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최만호 박사는 현재 스테로이드 관련한 세계적인 학술지인 'The Journal of Steroid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의 Associate Editor로 활동하고 있다). 대접을 받지 못해 섭섭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일을 하는 전문가가 국내에도 있음을 알아줬으면 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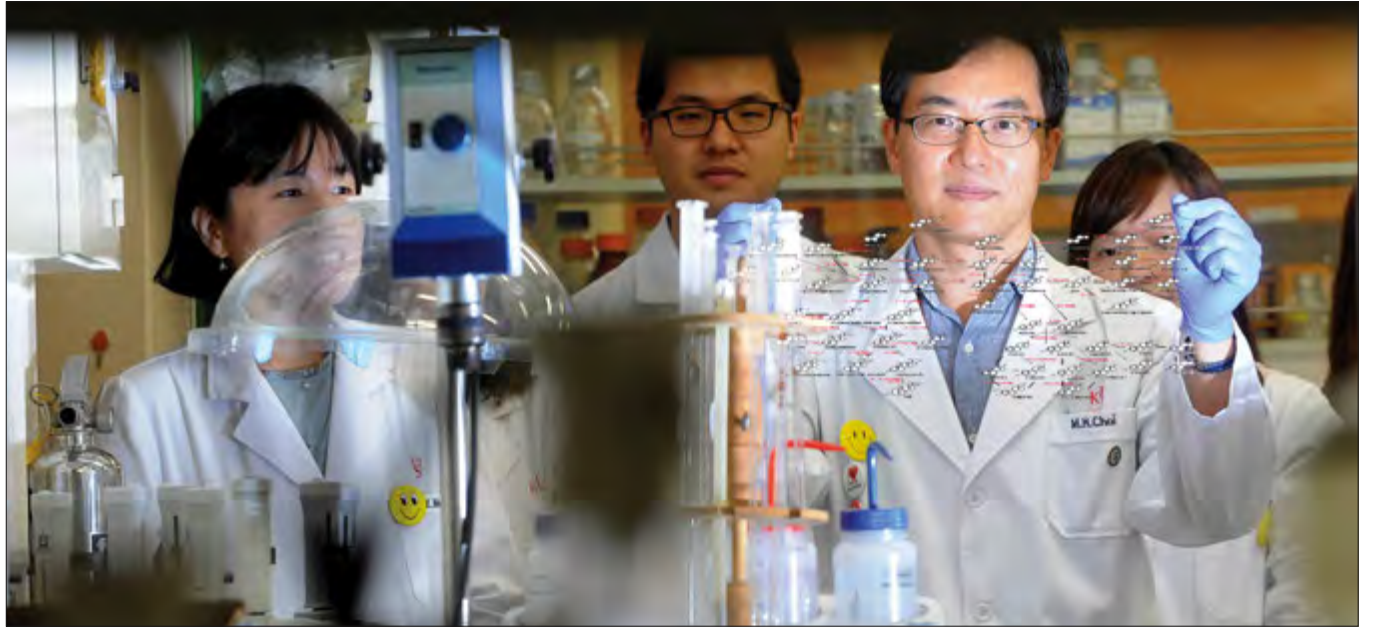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알리고, 또 전문가들 간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지난해 '스테로이드 투데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만들었다. 관련 연구자 및 의사들이 스테로이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위함이 모임의 목적이다.

- 의사들도 '스테로이드 투데이'에 관심을 보일 것 같다.

올해 이 모임에 대한내분비학회 운영위원한 분이 참석했는데, 이날 발표들을 듣고 우리 연구팀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그날 바로 학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더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흔쾌히 응했다. 그 분께서 학회에서 PhD는 내가 처음이라고 귀띔했다(웃음). 영광스럽게도 이번 내분비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줬다. 보다 더 의사들과의 협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 내분비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선 어떤 발표를 할 생각인가.

일단은 스테로이드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스테로이드 중요성



“우리가 원하는 건 돈과 같은 보상이 아닌 연구의사와 콜레보레이션 기대”

은 의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외국에서 어떻게 스테로이드 분석을 하는지와 국내서도 그 못잖게 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릴 생각이다.

또 학회에서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학술대회에서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특정 질환 스테로이드

분석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이다.

- 최 박사님이 탈모 치료물질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는 기사를 봤다. 현재 하고 있는 연구들은 무엇이 있나. 또 유은경 교수 외 다른 의료진들과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있다면 그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탈모 치료 물질 관련한 연구는 현재 경희대 피부과 심우영 교수팀과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와 심혈관질환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연세 세브란스병원 정진과 교수님과 수면장애 관련 연구도 준비 중이다. 백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성조숙증 및 성기 모호한 경우에 대해, 비만 관련해서 세브란스 가정의학과팀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의료진들과의 연구에서 최 박사팀의 역할은 뭔가.

분석하고 그에 따른 과학적 결과만을 이야기한다. 딱 거기까지다. 혹여라도 (샘플 제공자가) 무슨 질환이다, 환자다 아니다 그런 건 방진(?)해기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문 분석가이자 과학자이지 임상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같이 연구하는 의사가 개인적 의견을 물을 경우 빗대 표현할 수 있지만, 병의 유무 등을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 의사들과 일을 하면서 섭섭했던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최근 의료계와 다른 분야의 콜레보레이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타 분야 전문가들이 의사 사회에 들어가기에 장벽이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임상 비전문가로서 감히 제안한다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줬으면 싶다.

일부지만 과거 우리팀을 함께 연구하는 파트너가 아닌 마치 병원에 소속된 분석팀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있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해당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공유해야 하는데, '너희가 임상을 알아'라며 일방적으로 분석만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같이 연구를 못한다.

- 앞으로의 바람은.

우리가 원하는 건 돈과 같은 보상이 아니라 연구다.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 대학병원 의사들이 환자 진단을 위해 급하게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돈 안주면 안해 요라는 말은 안한다.

그 정도의 연구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도 아니다. 의사들과의 활발한 콜레보레이션을 기대한다. ■

글 박기택 기자 pkt77@docdocdoc.co.kr
사진 김형진 기자 kimc@docdocdoc.co.kr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박재영 저 | 416쪽 | 18,000원

‘의학은 과학이지만, 의료는 정치다.’ 두 얼굴의 한국의료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더불어 완벽한 의료는 없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일보>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이 책은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한국의료의 어두운 모습에 청진기를 들이대고, 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복잡다단한 의료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중앙일보>

한국의료의 전모를 짚으면서, 실타래처럼 얽힌 보건의료 현장 이야기를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으면서도 해박한 배경지식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한국일보>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나는지 ‘한국의료의 현실’을 친절하고 적나라하게 꼬집는 책이다. 가히 한권으로 읽는 한국의료의 총집합서라고 할 수 있다. <영남일보>

“복잡하기 짝이 없고 팔수록 길을 잃기 쉬운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이 예전에 있었던가 싶다.”

송호근 서울대학교 교수